

社會科學文獻을 통해 본 産業施設의 立地確保

M. D. Richard

美에너지개발협의회 조사부장

美 원자력발전감시위원회(NPO C)의 전략계획에 따라 설치된 美에너지개발협의회(USCEA)의 입지홍보위원회는 1991년 5월 산업시설입지에 관한 사회과학문헌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머리말

USCEA는 이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입지와 관련된 방대한 문헌과 공표된 자료 및 공표되기 전의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수집했다. 동 위원회의 대부분의 위원들은 본 문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이 보고서는 70건 이상의 자료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문헌에 의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캐나다원자력공사(AECL)의 에곤 플렉스氏は 공개문헌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많아 공통된 원칙을 도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美 전력연구소(EPRI)의 Risk Communication 연구를 지휘했던 스크레멘트 인터내셔널社의 스티브 스완슨氏는 『많은 사람들은 입지전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같은 분야가 명확히 확립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헌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데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문헌은 시설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최선책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하에서 채택할 수 있는 기술은 많지만 이것은 오히려 과거의 경험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도 중요한 몇가지 공통원칙이 있다.

1. 국민적 합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을 강요한다는 것은 강한 반대를 가져오는 소동을 일으킨다.

2.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설비를 설치한다는 결론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설비의 필요성을 확실히 보여주고 합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4. 기술적인 증명 만으로는 필요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5. 일반사람들은 정중한 대접을 받는 가운데 정보를 입수해 대화를 나눌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입지선정과정에서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6. 관심을 가지고 있던가 그 일을 맡고 있는 관계자와의 공개적인 대화는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같은 대화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화가 이루어지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7. 일반사람들의 합의를 얻으려면 그들로 하여금 입지선정과정에 참여시켜 신뢰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어떤 사회과학자가 지적했듯이 자발성만이 국민적 합의의 결정적요인이 된다.

지역사회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 예컨대 집안으로서의 특정 지역사회의 관념이나 깨끗한 공기, 물, 건강한 생활과 같은 시민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또 그 자산가치에도 관심을 갖고 있을 것이다. 시설입지를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에 보장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까지의 입지경험에서의 문제점

입지선정은 지금까지 기술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그들은

최선의 입지지점을 선정할 때 선택 범위를 압축, 합리화시키는 방법을 써왔다. 이들 입지지점은 독단적으로 하나로 압축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측에서는 시설을 완성시키기 위해 여러가지 일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주변주민을 교육시켜 그 사업이 안전하고 가속에 해를 끼치지 않을 뿐더러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설득시키려고 했다. 이같은 과거부터의 접근방법은 「결정-발표-방어」 입지방법이라고 불리우고 있다.

반대그룹(많은 가정부인이 주체가 돼있다)은 입지개발자에 대항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교환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정보망을 구성해 왔다. 이것은 매스컴 시청자들에게 제 나름대로의 반응을 보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치지도자는 사회적 필요성보다는 자기의 정치생명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그 사업에 관여할 것인지 여부를 분석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을 발견하고 자기쪽의 과학자를 제공해서 하나의 사례 즉 이른바 반대과학을 지지했다.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대중은 기술문제에서는 과학자를 신뢰하지만 기술문제에서 도전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같은 전문가간의 논쟁에서는 과학적인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입장을 똑같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상례이다. 서로 모순되는 사실은 혼란을 가져와 과학적 판단을

흐리게 한다. 그 결과 교착상태에 빠져 일이 지연되고 사업이 중지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을 NIMBY(우리 집 뒤 뜰에는 안된다), 또 LULU(이 지역에서의 토지사용 사절)라고 불리우고 있다.

NIMBY는 심각한 사회문제의 징조

NIMBY는 특히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시설을 방해하는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 외의 사회문제의 징조라고도 볼 수 있다. 문헌에 의하면 NIMBY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1. 인구이동과 인구과밀지역에서의 인구증가
2. 기술이 전문화됨에 따라 특이한 많은 전문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소위 「바벨의 탑」 효과
3. 기술과정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요소의 종류 증가
4. 산업재해(인공재해, 따라서 방지가능한)에 관한 정보 및 映像의 증가
5. 시민에 대한 재해방지를 위한 정부규제와 개입의 증가
6. 전문기술의 세분화
7. 전문가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기술전문가간의 의견차이(정치적 이유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인한) 빈발
8. 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감 팽배
9. 산업계와 정부가 대중에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신뢰감의 저하

10.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해 위험방지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11. 리더십의 결여 즉 입지를 지지하려는 정치지도자가 적다는 것
이들 요인은 대부분 기술혁신과 변화에 대한 대응조치가 완만히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같은 대응의 지체는 「이행의 위기」라고 불리운다. 기술은 사람들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지만 그 반면에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정보를 가져왔다. 이것은 또한 지식은 항상 변화하고 있고 오늘 안전했던 것이 내일에는 해를 끼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이같은 「이행의 위기」 즉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없는 것은 가치관의 대립을 가져온다. 다음의 4가지 가치관의 대립은 NIMBY 반응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문제해결자로서의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감과 새로운 문제를 낳을 수 있는 이상의 능력을 과학기술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심과의 대립
 2. 신의 창조자에 의해 이용되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자연과 신의 창조자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자연(에텐의 동산)과의 대립
 3. 집단의 권리와 정부의 개입 증가와 개인의 권리와와의 대립
 4. 공평한 분배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책무를 누가 맡느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대립
- 문헌들은 산업입지에 대한 반대가 단순한 반기술, 反산업, 反발전

또는 개인의 경우에 대한 사상적인 반대보다도 훨씬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종류의 시설은 더 큰 사회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같은 종류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대중의 결정을 더 수용하도록 하고 일찍이 대중의 참여를 구한다

입지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보다는 실패 가능성이 많은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일찍이 대중이 참여하면 시설개발자가 대중심리와 보조를 맞추고 또 대중이 시설개발자와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법적인 결정은 종종 좀 더 일찍이 논의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이유로 대중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 대중 속의 관계자는 시설개발자와 같은 생각과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결론의 정당성을 이해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개발사업에 대한 반대는 항상 있는 것으로 그들을 제외시키기 보다는 끌어들이는 쪽이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받아들여지기 쉽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대중을 참여시키는 이같은 전략은 서로 다른 많은 이익의 요구에 응하려는 보다 다원적인 접근방법이며 유일 또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이 전략은 일반적인 진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어진 상황하에서의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문헌에 의하면 대중의 참여는 많은 단계가 있다. 대중에 항상 정보를 흘리는 것(홍보캠페인, 특별작업반, 조연구룹)에서부터 대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계획위원회가 입지위원회에 지역주민대표를 참여시킨다. 대중회합, 워크숍, 문제 해결을 위한 회합, 조사자료의 활용)이던가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중의 의사를 받아들이는 것(교섭, 중개) 등 많은 단계가 있다.

시설이 제안됐을 때 즉시 대중이 질문하는 사항은 다음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그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 에너지분야에서는 사람들은 『절약이나 효율문제를 신중히 고려해 결정한 것인가』라고 질문할 것이고 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을 줄이려는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것이다.

2. 제안된 시설이 그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이러한 의문에 만족할 만한 회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시설의 입지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시설입지에는 자발적인 최근방법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지역사회는 스스로 이 문제를 검토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사회정치적인 문제가 처음 거론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문제가 논의된다.

어느 사회학자는 지역사회는 만약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입지가능성을 검토해 반대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그 시설입지를 강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은 입지과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

다. 이 과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관계자간의 불신이 심화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대중을 참여시키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대중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언제나 쉬운 것은 아니다. 관계자 상호간의 불신감, 냉담과 무관심, 기술과 입지의 잠재적 영향에 관한 지식의 결여, 빈약한 과거 경험, 특정 이해관계에의 집착 같은 것이 있을지 모른다. 또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워크숍이나 회합 때문에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 유해 또는 방사성폐기물시설을 받아들이는 지역사회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사회가 사전에 관여하지 않은 가운데 후보지로 선정되었다면 많은 사람들은 소란과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 이것은 입지과정을 대립의 장으로 만들어 대화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공감대 형성, 의견의 일치점 발견

많은 사회학자들은 입지노력의 주목적이 동의를 얻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 있다고 믿고 있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반대론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반대론자들은 종종 다른 선입관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어 이것이 혼란을 가져오고 대립을 격화시킨다.

직접대화형식을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재판이나 공청회는 양측에 불만을 남긴다. 사회과학자는 중립적인 제3자가 촉진역이나 중재역을 맡으면 토의나 절충이 더 잘 받아들여져 결실을 많이 맺는다고 말하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모든 관계자가 우선 맨 먼저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을 지키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섭, 중개, 보상이 해결방법

입지과정은 오래 걸린다. 이것은 필요성과 안전성에 관한 문제에 대한 논의나 공감대 형성에서 시작해 여러가지 보상이나 위험성 경감에 대한 합의를 통해 모든 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방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교섭에서 끝난다. 사회과학자들은 조기교섭을 제창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낙관주의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애방어나 완화문제는 교섭에 앞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상은 입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교환조건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들은 보상에는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

1. 지방정부에 대한 지불금 또는 세율의 인하
2. 조건부 보상, 즉 자산가치의 보증이나 보상 같은 자치단체에서는 시산할 수 없는 비용
3. 본질적 보상 즉, 균형이 잡힌

試算 가능한 비용

4. 보호, 즉 새로운 비상시 계획 설비, 훈련, 입지모니터링

5. 영향의 완화

사회학자들은 보상협정을 협의할 때 반대자의 감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데 대해 신경을 쓰도록 시설개발들에게 충고하고 있다. 단순히 현금만 지불하는 것은 적합치 못한 경우가 많고 뇌물로 오해 받기 쉽다. 여러가지 교류는 지역사회 내의 각종 단체에 어필한다는 것은 알 필요가 있다. 유력한 의사 결정자는 보상이 지방세력간의 공평한 분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중이나 환경보호단체 대표자들은 지방세력간의 공평한 분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상도 중요하지만 대중은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보상보다도 훨씬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보상은 협력을 얻는데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일상적인 설비운전상황을 지방주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는 쪽이 입지를 받아들이는 면에서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이미 발견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또한 가지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한 시설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시설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약속일 것이다. 지역사회는 또 교섭은 불법행위규제법 만이 아니고 계약정판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이같은 계약에서는 특정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특별한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에 의하면 대중이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는 또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그 지방의 공적 대표자들과의 교섭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입지문제는 주로 지방차원에서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지방차원에서는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복잡한 요소가 개입된다. 즉 그 시설 근처에는 살지 않지만 그 시설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과 지역사회가 있다(예컨대 바람이나 하천의 하류에 있다던지 수송경유지에 사는 경우다). 이와는 반대로 쏘나 국가에서 반대해 사업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지역사회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

산업시설을 받아들여서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문헌에 의하면 어떤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사회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산업시설을 유치하려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1. 그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미 같은 종류의 시설이 입지돼 그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2. 입지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이 충족되는 지역. 지방당국은 지역문제의 해결책으로 산업시설을 유치하려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대부분

의 경우 이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합의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3. 환경정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 이것은 「위험성 감소전략」이라고 불리워져 새로운 시설의 입지는 기존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교환조건이 된다.

4. 이미 공업화돼 있는 지역

입지가 쉬운 곳, 어떤 곳인가

많은 사회학자들은 가장 바람직한 지역사회란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검토하는 곳이라고 믿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익이 손실을 웃도는 경우에만 산업시설을 받아들일 것을 고려할 것이다.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태의 복잡성을 이해해서 교섭을 벌일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또한 정치적인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지역사회와의 공동작업은 효과적일 것이다.

1. 공동어

2.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견해를 집약할 수 있는 정치기구

3. 확실하게 의견을 말하고 공개적인 과정의 남용을 허용치 않는 정치적 지도력

4. 지역사회의 목표를 제의해서 문제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진영을 분열시키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수용가능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민주적인 능력

정보의 골을 매운다. 당신의 사정, 나라의 사정, 우리들의

사정 등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시간도 이에 대한 관심도 없기 때문에 홍보담당자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알고 싶어하는가를 알아내 그러한 정보를 가장 기능적이고 이용하기 쉬운 형식으로 취합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의문을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문제의 양면은 각각 자기에 관계되는 사실만을 부각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양면의 사실이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들은 서로 협력해서 만들어진 서로 합의한 정보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지역사회에서는 이같은 정보기반을 만들고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자문단을 구성한 데도 있다.

미국에서 전국 규모로 실시된 공동정보형성과정의 예로는 「유해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라는 표제로 시민을 위해 발표된 핸드북이 있다. 이 책자에 따르면 협력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자연보호단체
2. 화학제조업단체
3. 내셔널오드본협회
4. 천연자원보호협회
5. 키스톤센터
6. 다우케미컬(미국)
7. 셀러클럽
8. 몬산토社
- 9.全美야생동물보호단체

10. 환경보호기금
11. 내셔널고형폐기물처리협회
12. 콜로라도州 지사사무소
13. E. I., 듀폰, 드·누르社
14. 미국상공회의소
15. 州입법국민협의회
16. 개인변호사
17. 미국여성투표자연맹
18. 법률환경보조기금

의견의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핸드북은 쌍방의 입장을 각각 보이고 있다. 이 책자는 독자가 문제의 전모를 파악하고 결단을 내리기 쉽게 해주고 있다.

어떤 연구자가 말한 바에 의하면 반대그룹이 때로는 근거없고 관계없는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같은 공격도 이해심이 없는 왜곡된 시설개발자의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있어서는 정당한 공격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어떤 반대그룹은 시설개발자 이상으로 자기들의 공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희박한 경우가 있다. 이같은 경우에 감사기관이 그같은 무책임한 태도를 적극적으로 체크하지 않는 한, 주민참여가 급속히 낮아진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안다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시설개발자가 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비판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고 하는 일방통행식의 대화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효과적인 커

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시설개발자가 대중의 희망사항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문헌에 의하면 다양한 대중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가정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 일반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들에게 물어보아서 그것을 알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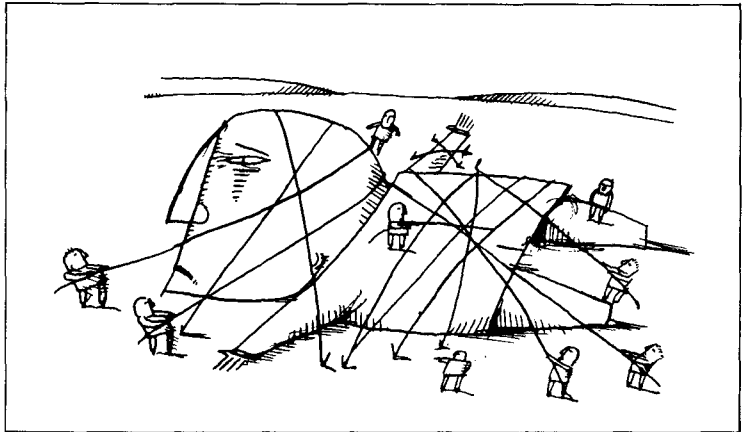
2. 일반사람들이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전달하도록 할 것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사항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계획을 세울 것. 산업계가 참여하고 지원하는 전략계획과 대중이 참여하는 계획의 두 가지 계획. 에디슨전기협회는 일반참여과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세부계획도표가 포함돼 있는 많은 설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참고자료가 준비돼 있다.

2. 계획을 신축성있게 세울 것. 커뮤니케이션과 대화는 행동양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

3. 특정한 사업을 계획하던가 이를 발표하기 전에 대화를 시작할 것. 준비가 아직 돼있지 않은 지역사회에 당신의 계획을 전달하지 말 것. 早期대화는 신뢰구축에 중요한 것으로 이것은 어떤 제안이 순조롭게 받아들여지던지 아니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저지당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4. 우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식의 접근방법이나 정식 공청회 같은 서로의 대화를 방해한다던가 커뮤니케이션에 장애가 되는 행동은 피할 것

5. 반대자에 개의치 말고 신용과 신뢰를 쌓도록 노력할 것

(1) 신의를 보인다. 행동과 이미지는 말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할 수 없는 일은 절대 제안하지 않는다. 지역사회에서 그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다.

(4) 과거의 잘못은 인정한다.

6. 한 가정이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보호할 필요성을 포함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도록 노력할 것

7. 기술적인 전문용어를 피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말을 사용할 것.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은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8. 기능을 갖춘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립할 것. 형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9. 선출된 당사자와의 대화를 유지할 것. 그들이 맨먼저 공격대상이 될 것이다.

10 조사방법을 잘 알고 이것을 이용할 것. 여론조사는 중심적인 신념이나 가치관을 확인한던가 태도변화를 추적한 또는 어떤 발상이나 생각이 의도했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가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평가적인 조사를 통해 특정한 커뮤니케이션 수단(팸플렛이나 광고 등)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11. 원자력기술, 방사능, 유해폐기물과 관련된 시설을 기피대상이 돼있어 대부분의 지역사회는 이것과 관련을 맺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잘 검토해서 시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시설입지에 의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사회를 찾고 있다는 점을 알 것

안전성을 전하기 위해 이익 이나 방어 또는 제어에 관해 설명한다

기술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학자들은 대중의 주관적인 위험성평가가 과학자의 평가와 어떻게 다르고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다. 원자력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위험성이 낮은 대표적인 예다. 많은 사회학자들은 위험성을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즉 잠재적인 위험성을 질적으로 평가해서 이에 대한 공포심을 완화시키는 수법으로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완화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쟁점은 보통 그 시설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성보다도 그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일어나는 위험성에 집중된다. 위험성은 논쟁과 편견이란 분위기 속에서 전달되기 때문에 시설입지 반대자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이다. 그들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또 시설이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위험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견해는 무시한다. 이와 같이 위험성이나 불확실

성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

안전성을 전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 것과 같이 위험성 측면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기술에서 얻는 이익, 그 시설이 얼마나 주의깊게 운전되고 감시되고 관리되고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해야 한다. 가동중인 시설이나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안전성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줌으로써 신뢰성이 높아지게 된다. 운전기록에 관심이 없고 뚜렷한 이점과 규제를 이해시킬 수 없다면 위험은 피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사회과학자는 사람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기술 자체보다도 관리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의 걱정 중에는 운전관리의 결정, 정보에의 접근, 시설운전자와 주민간의 분쟁처리능력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중이 진지하게 고려해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대중은 관련된 위험의 복잡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고 믿고 있다.

결 론

문헌은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만 입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접근방법이나 단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쉬운 해결방법은 없지만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보장할 수는 없지만)은 많다. 입지과정에서의 개개의 변경은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변경을 가져온다. 제안된 해결책은 대부분 입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떠한 문제도 여러가지 면에서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어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 포괄적이고 공감대 형성을 추구한 신중하고 유연성 있는 전략은 필요한 산업시설의 입지 과정을 촉진시킨다. 그 시설의 필요성이 명확하게 확립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결여돼 있다면 그 사업의 전도는 난황을 면치 못할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입지문제는 정부나 기관의 정당성을 묻게 되는 가장 일반적인 위기 중의 특별한 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시민들은 지금까지 이같은 문제는 희생도 노력도 필요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왔고 또 선출된 사람들 대부분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알면서도 대중이 요구하는 무난한 선정을 약속하는 등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분위기속에서 협력해왔다. 많은 州에서 하고 있는 입지과정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한 지사의 말을 빌린다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이 시설은 공동이익을 위해 어른들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것은 남용되거나 착취하거나 아이들에게 암을 유발시키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어른스럽게 처신해야 할 것 같다』(原子力資料 7月號)■